
		<b>보도자료</b> 	
<b>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b>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의: 융합서비스센터 윤정선 책임연구원(042-869-1747, 010-2062-3860)			
배포번호 : 2020-81 배포일자 : 2020.11.12.(목)	매수 : 보도자료 7매 (첨부자료 포함)	배포처 : 대외협력실	

### 세계 한인 과학자의 현지 경험을 담은 박사 후 연구(포닥) 지침서 발간

- KISTI, 「슬기로운 포닥생활, KOSEN이 알려주는 해외 포닥생활 A to Z」 발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의 KOSEN(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이하 코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해외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이하 포닥) 지침서인 「슬기로운 포닥생활, KOSEN\*이 알려주는 해외 포닥생활 A to Z」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 KOSEN(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www.kosen21.org](http://www.kosen21.org))은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지원하고 KISTI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슬기로운 포닥생활, KOSEN이 알려주는 해외 포닥생활 A to Z」는 현재 해외에서 포닥 과정 중이거나 포닥 경험이 있는 한인과학자들이 현지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정보를 담은 해외 포닥 지침서로, 해외 포닥 경험자들의 생생한 정보를 취합한 책은 「슬기로운 포닥생활」이 국내 최초이다. 보다는 많은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출판되었으며 코센 홈페이지([www.kosen21.org](http://www.kosen21.org))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동안 포닥은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신진연구자로 또 창의성과 연

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인력자원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지만, 이들이 포닥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는 미비했다. 이 책에는 한인 과학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해외 포닥의 장점 ▲연구분야 및 진로 결정 시 고려할 점 ▲연구실(랩) 결정 시 고려할 점 ▲포닥 합격을 위한 꿀팁 ▲국가별 포닥의 특징과 추천 학교 ▲포닥생활 슬기롭게 하는 비법 ▲해외 포닥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때 ▲포닥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포닥을 마치고, Job apply 준비하기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지원정책과 해외 포닥 중 느낀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추진방법도 다루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정책 수립에 활용할 만한 내용도 풍부하다.

코센 연구책임자인 KISTI 융합서비스센터 윤정선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의 한인과학기술자들이 코센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리고, 코센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진 가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코센이 사람과 지식 중심의 공유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협력과 폭넓은 연구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1 KOSEN(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설명자료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코센(KOSEN, The Global Network of Korean Scientists & Engineers, www.kosen21.org)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다.

전 세계 70여 개국 한인과학자들의 휴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문 분석보고서와 암묵지 등 고급 지식정보를 교류하며 쌍방향 지식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전체 회원 수는 약 15만 3천 명이다.

코센은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행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을 맞춘 보기 드문 정보 사이트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행사에는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족 단위로 추진된 ‘코센 페스티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센데이’ ▲ 해외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경험했거나 현재 과정 중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닥데이’ ▲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코센 오픈 세미나’ 등이 있다. 또한, 해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해외 한인학생회의 오프라인 모임 등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 첨부2 KOSEN(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포닥데이

KISTI는 코센 회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매년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중 포닥데이는 코센이 해외 포닥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의견을 심층적으로 취합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다.

일 년에 한 번 주간을 정해 해외에서 현재 포닥 과정 중이거나 과거 포닥 유경험자들이 각 지역별로 오프라인 소모임을 열고 포닥 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해왔다. 포닥데이를 통해 취합된 의견은 해외 포닥을 준비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 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포닥데이 참여국/팀과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포닥데이 후기 페이지 (<https://kosen21.org/notice/podocDayMain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포닥데이 주제>

년도	참여국/팀	토론주제
제1회(2014년)	4개국/13개 팀	- 해외 거주 과학자로서 모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길 - 포닥이 바라는 KOSEN - 행복한 포닥으로 사는 법
제2회(2015년)	4개국/13개 팀	- 한국에 제안하는 각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지원정책 - 포닥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
제3회(2016년)	2개국/10개 팀	- 해외 포닥 중 느낀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효율적인 추진방법 - 해외 포닥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제4회(2017년)	4개국/12개 팀	- 세계 각국의 포닥 지원정책 - 포닥 분야별 추천·비추천 학교
제5회(2018년)	4개국/20개 팀	- 포닥을 지원할 기관이나 랩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 자주 이용하는 학술 사이트 추천
제6회(2019년)	4개국/16개 팀	- 포닥 이후, Job apply 준비하기 - KOSEN을 알게 된 계기와 활용사례

### 첨부3

## 「슬기로운 포닥생활」코센이 알려주는 해외 포닥생활 A to Z

책에는 코센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포닥데이(Post-Doc Day)’ 행사를 통해 접한 총 722명에 달하는 해외 포닥의 의견이 담겨있다.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어, 어떻게 해외 포닥을 준비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무엇이며, 포닥을 마친 뒤 Job apply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까지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험담이 가득하다.

상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발간사

「슬기로운 포닥생활」은?

KOSEN이란?

포닥이란?

포닥데이란?

#### Before Post-Doc.

1. 해외 포닥의 장점
2. 연구분야 및 진로 결정 시 고려할 점
3. 랩 결정 시 고려할 점
4. 포닥에 합격하는 꿀팁
5. 국가별 포닥의 특징과 추천 학교

#### While Post-Doc.

1. 포닥생활 슬기롭게 하는 비법
2. 해외 포닥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때
3. 포닥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 After Post-Doc.

1. 포닥을 마치고, Job apply 준비하기

#### Opinion of Post-Doc.

1. 한국에 제안하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지원정책
2. 해외 포닥 중 느낀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추진방법

### 첨부4

## 포닥(Post-doctoral researcher)과 국내 포닥 현황

#### ● 포닥의 정의

포닥(Post-Doc.: 박사 후 연구원, Post-doctoral researcher)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정규직 연구자로 정착하기 전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자신의 연구 역량을 쌓아가는 임시직 연구자를 뜻한다. 향후 각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중추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실전훈련을 하는 과정, 혹은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job-buffer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포닥에는 traineeships, fellowships, research scientists 등의 형태가 있다.

#### ● 포닥의 특징

포닥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훈련을 지도하는 Principal Investigator(PI)가 있으며 ▲향후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계 지향성’이 높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여러 단계의 연구 인적자원 가운데 창의성과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인력으로 평가된다.

#### ● 포닥의 규모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19.5%가 포닥으로 진출한다. 학문 분야별로는 자연, 공학, 의학 등 이공계열의 포닥 비중이 타 계열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 전체의 80.5%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 국내 신규 박사학위자 13,170명 가운데 포닥을 시작하는 인력은 전 학문 분야에 걸쳐 약 3천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해외 포닥은 약 700명이다. (2020.04. STEPI Insight 253호)

첨부5

「슬기로운 포닥생활」 표지 이미지

